

번호: PO-EP-038					
제 목	추적관찰을 통한 공복 혈당과 암 발생과의 관련성 Fasting glucose level and cancer risk in a prospective cohort study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전재관, 최윤희, 유근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Jae Kwan Jun, Yunhee Choi, Keun-Young Yoo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 야	역 학 [만성질환 역학 및 건강 위험요인]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목적: 당뇨병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유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만성질환이다. 많은 역학연구에서 당뇨병과 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고, 실험연구에서 일부 암의 발암과정에 인슐린의 역할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암 발생 위험요인으로서의 당뇨병의 역할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에 다기관 코호트 연구를 통해 공복 혈당과 암 발생 위험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p> <p>방법: 199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입적된 26,501명 중, 암 발생 및 이로 인한 사망을 확인할 수 있고, 암 진단 과거력이 없는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8,445명(남자 8,141명, 여자 10,30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추적관찰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코호트 구성원의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은 중앙암등록사업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다. 코호트 구성원의 설문서는 면접원에 의한 직접 면접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설문조사와 함께 시행된 혈당측정은 공복상태에서 채취된 정맥혈에서 이뤄졌다. 측정된 혈당치는 3개의 범주로 나누었는데, 각각 109mg/dL 이하, 110-125mg/dL, 126mg/dL 이상이다. 공복 혈당군에 따른 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콕스비례위험모형으로 산출하였는데, 교란변수로 연령, 성별, 흡연상태를 보정하였다.</p> <p>결과: 관찰기간 총 119,491 인-년 동안에 남녀 각각 289건과 198건의 암 발생이 관찰되었는데, 공복 혈당과 모든 암 사이에는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호발하는 주요 암, 즉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별로 보았을 경우, 위암은 정상 혈당군(109mg/dL 이하)에 비해 고혈당군(126mg/dL)에서 암 발생 상대위험도는 1.35배[95%CI 0.80-2.26] 증가하였으며, 추적관찰기간 중 첫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면 암 발생 상대위험도는 1.84배[95%CI 1.04-3.25]로 증가하였다(p for trend=0.14, 첫 2년을 제외하면 0.01). 간암의 경우에는 경계선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이 보였는데, 정상 혈당군에 비해 1.81배[95%CI 0.96-3.39] 증가하였다(p for trend=0.06). 추적관찰기간 첫 2년을 제외하면 유의한 관련성이 보이지 않았다. 폐암과 대장암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p> <p>결론: 본 연구는 모든 암 발생과 공복 혈당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암, 특히 위암과 간암에서 공복 혈당이 높을수록 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위암과 간암에서 공복 혈당과 암 발생과의 관련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p>					